

시화로 메달로... 가슴 속에 새기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다채

시 주제 삽화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그림이 되다” 교보문고 예약판매
온라인서 시낭송 감상·필사 체험
조폐공사, 기념메달 한정 발행도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가 출판 과정에 참여한 결실이 출간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운동주 기념메달도 출시돼, 시인의 삶과 문학을 다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교보문고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공모전 ‘시, 그림이 되다’ 일러스트 수상작 출간을 앞두고 예약판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문고는 “운동주 스페셜 에디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오는 12월 1일 단행본으로 출간하며, 지난 20일부터 인터넷교보문고에서 단독으로 예약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책에는 독자가 직접 뽑은 최고의 작가 5명의 작품과 시낭송, 필사 등이 담겨 있다. 콜라보레이션 ‘시, 그림이 되다’는 창작자들에게는 작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시를 일러스트로 감상하며 나아가 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네이버 창작자 플랫폼인 ‘그라폴리오’를 통해 작품을 접수 받았고, 공모된 1020여 개의 작품 중 기법과 표현력, 예술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선별했다. 2차 심사는 인터넷교보문고에서 독자의 투표로 최고의 작가 5명의 작품이 선정됐다. 창작자가 운동주의 시 20편을 주제로 일러스트를 그려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제출하면, 1차와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20편의 시와 삽화를 선정해 ‘운동주 스페셜 에디션’ 시집으로 출간하



중국 길림성 옹정중학교에 있는 운동주 석상. (광주일보 자료사진)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메달

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스페셜 에디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운동주 유고시집 19편에 ‘쉽게

씩어진 씨’ 1편을 추가한 20편의 시와 수상작이 담겨 있다. 표지에 사용된 ‘동주’의 필체는 시 말미에 남겨두려 했던 운동주의 자필서명 중 하나다.

이번 시집을 통해 독자들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과 운동주의 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페이지별로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오디오 크리에이터들의 낭송을 들을 수 있다. 낭송은 네이버 오디오클럽의 젊은 성우들이 맡았고, ‘시 그림이 되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참여하기도 했다.

또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필사 페이지를 만들어 독자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한 직접 작사와 작곡을 통해 젊은 나이에 육사했던 시인 운동주가 남긴 미완의 기록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운동주 스페셜 에디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문학과 삶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나이가 현재를 사는 청년들이 영원한 청년 운동주를 재해석하고 그런 새로운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2076-0533.

한편 이에 앞서 조폐공사는 최근 운동주 시인 탄생 100돌을 맞아 기념메달을 출시했다.

조폐공사는 짧지만 부끄럼 없는 삶을 마감하고 별이 된 운동주 시인을 기리고, 우리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그의 작품을 재조명하고자 100주년 기념메달을 기획했다. 기념메달은 운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와 ‘시집 디자인’, 그리고 ‘필명 서명’ 등의 원본을 그대로 담아냈다.

기념메달은 3종류로 금메달(300개 한정), 은메달(1000개 한정), 대형 은메달(500개 한정)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메달 앞면에는 운동주 시인의 초상화가, 뒷면에는 탄생 100주년을 나타내는 ‘1917’, ‘2017’ 숫자와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구가 적혀 있다.

은메달에는 감옥에 갇힌 운동주와 지식인 운동주의 초상을 함께 새겨 넣어 독립의 소망을 강조했다. 대형 은메달에는 대표적인 ‘서시’와 ‘별 헤는 밤’의 육필원고와 유고시집 증보판의 초판본 표지가 새겨졌다.

문의 02-3471-4586/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 바이올린 협주 ‘운명의 경계’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24일 전남대 민주마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운명의 경계’를 주제로 제329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24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이날 공연은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협연한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첫무대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으로 연다. ‘운명의 힘’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다룬 오페라다.

이어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를 지망했던 시벨리우스가 남긴 단 하나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바이올린 협주곡들 중에서도 특히 바이올린다운 기능과 미감을 잘 살린 수작으로 평가받는 곡이다.

협연자 이성주는 뉴욕 비엔나프스키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시벨리우스콩쿠르·워싱턴콩쿠르·차이콥스키콩쿠르 등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다.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초청으로 귀국해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실내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미를 장식할 곡은 브람스 교향곡 1번이다. 브람스는 20년의 세월을 걸쳐 이 교향곡 1번을 작곡했다. 한스 폰 볼로는 이 곡을 두고 불후의 명곡인 베토벤의 아홉 개의 교향곡을 계승하는 걸작이라는 의미로 ‘열 번째 교향곡’이라고 불렀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art.kwangju.g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62-524-508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문병란 시집 일어판 출간 김정훈 교수 오늘 도서 강연

최근 문병란 시집 ‘낙엽에게-1980년 5월 광주’를 일본어로 번역해 히로오카 모리오 교수(주오대)와 함께 일본에서 출간한 바 있는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나고야 아이치교육대에서 문병란 시인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김정훈 교수는 21일 ‘평화를 위한 문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문병란과 다키미 난키치의 문학을 중심으로’ 시민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교수는 문병란 시인 외에 강연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키미 난키치는 근모정신대 시 민모임과 나고야지원회의 교류 일환인 한일청소년평화교류를 추진 중에 만난 작가다. 다키미 난키치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 동물과 인간의 교감, 아름다운 자연 등을 테마로 작품활동을 해왔다.



김정훈 교수

김 교수는 “난키치의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는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강연은 문병란의 민주적, 평화적 활동과 난키치의 사회적 시점을 비교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간세이가쿠인대학 문학연구과에서 나쓰메 소세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하나오카 사견과 한수산 ‘군함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징용 관련 문학에 전착하면서 일본 내 우리 문학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작가들, 오늘 박상화 스튜디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네 번째로 박상화(사진)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21일 오후 2시 방문한다.

이날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와 지역 작가들은 광주시 서구 능성동에 자리한 박상화 스튜디오를 찾아 작업 세계를 눈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박 작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영상매체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 비디오 조각, 영상



박상화 작가

설치, 융·복합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매체실험들과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 금호갤러리 금호영아티스트(2010), 하정웅 청년작가상(2013) 등을 수상했다.

‘GB작가 스튜디오 탐방’은 지역 작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내년 독일·대만과 교류

내달 해외 파견작가 모집공고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광주지역작가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립미술관 본관이 위치한 중외공원내에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지난 9월 개관했다.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의 개관에 따라 광주작가들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 초부터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장하고자했던 미술관의 노력이 하나씩 씩을 피우기 시작했다.

현재 가시화된 성과는 2018년도 유럽무대 작가 진출이다. 독일 뮌헨시 문화부와 직접적인 작가교류를 성사시켰다. 내년 9~11월 3개월간 뮌헨시와 광주시는 각각 작가 1명씩을 교류할 예정이다. 교류 내용도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며 파견되는 작가는 창작지원금을 받게 되는 최상의 조건이다. 뮌헨시와의 교류는 독일내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으로의 교류확장도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시아권으로는 2018년도 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와 타이난의 술랑프 아티스트 빌리지

와의 작가 교류도 성사됐다. 2009년도 말 개관해 지금까지 중국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경창작센터’ 작가입주와 중국 단기작가 교류,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요코하마 벵크아트 작가교류 등도 계속 이어간다. 또한 싱가포르 CCA(Center for Contemporary Art, Singapore)를 비롯하여 홍콩 등 아시아지역 교류도 추진중이다.

2018년도 해외 교류 파견작가 모집은 12월중에 공고한다.

건축면적 226.72㎡, 연면적 326.45㎡(지상2층) 규모로 중외공원내에 신축된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는 4개의 스튜디오, 세미나실, 휴게실, 세탁실,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NAER 광주전남수목장 · 검색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히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이릉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